

농업인과 따뜻한 동행, 쌀 사랑으로

전북농협 전 계열사
쌀 소비촉진 앞장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지역 농특산물 중심
답례품 공급 이해활동
실시 공감대 형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8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은행, 보험, 계열사 지역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8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은행, 보험, 계열사 지역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재고 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함께 3,000kg의 전북쌀을 구매해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고,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쌀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이해활동을 실시하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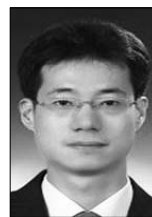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해, 도민 대상 '하루 두 끼 밥심으로' 운동 전개, 고객사(농민) 전북 쌀 활용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

는 1·2·3 운동(1인, 쌀 2포(20kg), 3개월간 구매)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전북 쌀 소비확대를 위해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정진욱 신임 전주세관장 취임

전주세관은 정진욱(47) 제41대 전주세관장이 취임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물가 폭등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관세 수출입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내륙 중추 세관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직원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장마 후 사과·배 과수원 해충 발생 주의

사과 '점박이응애'·배 '주경배나무이' 등 나무차림새 관리·풀베기 적절하게 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이후 과수원 해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잎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오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66.2%로 건조한 날씨가 많았으며 해충을 죽게 하는 곰팡이가 적게 생겨 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점박이응애와 사과면충을 주의해야 한다.

점박이응애는 사과 잎 뒷면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 해충으로, 알에서 어른벌레로 성장하는 주기가 한 해 10~15회 정도 반복된다. 그러나 기온이 높으면 2주 만에 알에서 어른벌레(성충)로 빠르게 자랄 수 있다. 피해를 본 잎은 작은 반점이 생기고 마르며, 심한 경우 잎이 떨어진다. 점박이응애 밀도를 줄이려면 풀베기를 할 때 한 줄의 반쪽을 깎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나

지 반쪽을 깎는 것이 유리하다. 농진청의 연구 결과, 지표면의 풀을 한꺼번에 깎았을 때는 깎기 전보다 점박이응애가 약 1.7배 증가한 반면, 한 줄의 2분의 1만 벤 뒤 다른 한쪽을 1주 뒤에 깎을 때는 약 1.5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응애 발생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는 7월 이후 응애가 3~4cm 이상 보이면 뿌리되 작물보호제가 잎 뒷면에 골고루 부착되도록 한다.

사과면충은 가지가 잘린 부분이나 지면 아래에서 발생하는 가지(혹지), 뿌리 등에서 발생한다. 흰색 솜털 같은 것이 덮여 있고 집단으로 모여 잎자루 아래나 나뭇가지가 잘린 부분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다. 특히 한 번 발생했던 나무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과면충은 고속분무기(SS기)를 사용할 경우, 중심 가지에는 약제 입자가 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생 부위에 분사구(약제)를 대고 전문 약제를

솜털이 날릴 정도로 뿌린다. 배에서는 8월부터 주경배나무이의 밀도가 증가하기 쉽다.

주경배나무이는 곰팡이에 솜털처럼 보이는 밀랍 물질을 덮고 다닌다. 주로 잎자루 이랫부분과 잎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데 어른벌레는 움직이지 못해 과수원 전체로 확산되기 쉬우니 주의한다. 주경배나무이는 전문 약제를 바르면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고온기를 피해 방제하는 것이 좋다. 여름 가지치기를 통해 뻗어난 배나무 가지를 정리하면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 약제가 잎에 더 잘 묻게 돼 해충 관리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고온기 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발생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홍성식 소장은 "나무 차림새 관리와 함께 풀베기를 적절하게 하면 해충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LX, 국가 SOC건설에 토지보상관리 확대

공공인프라 통합 플랫폼 구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국가 SOC사업의 토지보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LX공사는 18일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SOC 추진에 필요한 토지보상업무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X공사는 2016년부터 국가철도공단(KR)과 협업체 보상, 민원 등으로 지연되던 철도건설사업을 설계단계부터 지적도와 일치시켜 각종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 SOC를 구축하는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도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LX공사가 체계적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

LX공사는 각 수요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설계부터 준공 사후관리까



LX공사는 18일 본사 8층 회의실에서 '공공인프라 사업 통합 플랫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SOC 추진에 필요한 토지보상업무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상기관도 확대해나가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이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던

공공 인프라 건설의 토지보상이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각 공공기관과 협업체 혁신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벤처기업 생태계 굳건히'

신임 이인호 벤처기업협회 전국협회장 취임식
2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서... 나래코리아 주관

(사)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의 7개의 지역협회 가 수도권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집중돼 소외될 수 있는 지방벤처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2017년 11월 20일 발족된 가운데 (사)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 제3대 협의회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튜브 테너의 공연이 나래코리아(대표 김생기)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신임 이인호 전국협의회장은 벤처기업의 확실한 생태계를 굳건히하고 지역유관기관, 단체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이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역협회장인 이인호 협의회장(사진)이,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전북벤처협회 유기달 총괄이사가 맡게 됐다.

이번 (사)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는 벤처투자자의 마중물인 전북벤처개입투자조합1호 결성식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협의회 소속 대구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광주전남의 벤처기업협회 지역협의회장과 국회의원, 대학총장 그리고 전북소재 기업지원 유관기관장 그리고 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전주중앙경기장부근에 위치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되며 전국에서 오는 내빈에

생각이라는 취임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인호 회장은 전북벤처협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으로 5년간 1억을 후원하는 고액후원자 지원인 그린노블를람에도 가입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에 예술을 입혀 항상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전국정상급의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해마다 벤처기업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참가문의는 (사)벤처기업협회 전국협의회 유기달 사무총장(010-4584-6248)에게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해양수산물제품 '대박 행진'

수원메가쇼서 연일 완판 진기록... 매출 1억6000만원 성과



한국산 분유·음료

캄보디아 어린이에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K-Food 수출시장 다변화와 아세안 수출시장 육성을 위해 캄보디아 2선 도시에서 한국산 유아식품 릴레이 홍보·판촉을 지난 5월부터 2달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캄보디아 전역에 K-Food를 확산하기 위해 수도 프놈펜 이외 타크미우, 비탐방 시엠펙 등 구매력이 높은 8개 도시에서 한국산 유아식품의 주요 소비층인 주부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제분유, 유병 캐릭터 음료 등 다양한 유아식품을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시음·시식 활동뿐 아니라 어린이 댄스경연, 퀴즈게임 등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공사는 해외에서도 ESG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캄보디아 현지 의사와 함께 어린이 영양상태 상담 부스를 운영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2선 도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최근 캄보디아는 수도 프놈펜은 물론, 2선 도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과 프리미엄 식품 이미지를 지닌 한국산 유아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달간 행사 현장에서만 3만 달러 이상의 조제분유와 캐릭터 음료 등이 판매됐으며, 6월말 기준 캄보디아 유아식품 수출실적은 38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5% 성장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해양수산물창업투자지원센터(원장 김동수, 이하 바이오진흥원)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수원 팜도박상페어'에 참가해 수도권 직거래 판로개척을 위해 전북해양수산물판매공동관을 운영해 해양수산물 기업 21개사의 연일 완판 행진의 진기록을 세우며 현장매출 약 1억6,000만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판로개척 교두보 확보를 위한 뉴트로 추억여행 '전북해양수산물고등학교 여름방학중/우리들의 블루스'란 감성 마케팅을 접목하여 기존의 단순 지원에서 탈피한 차별화된 판매홍보를 기획했으며 참가기업의 세일즈 마인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판로개척 마케팅지원을 강화했다.

참가한 21개사의 관계자들은 여름방학중 건설에 맞는 하의외란 복장을 착용하고 전북 우수 해양수산물 기업들의 감성이 살아있는 제품(조기퇴근밀키트, 야간계장, 우리집삼식이추어탕, 꽃길만걸게, 중2병것갈, 고등어보단홍어 등)을 선보이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기간동안 전북 해양수산물제품의 현장 반응은 뜨거웠으며 매일 완판 행진으로 제품이 없어 판매가 중단되는

진귀한 현상이 발생 했고 참가기업들은 연일 공장에서 현장으로 판매 제품을 채우는데 노력하여 힘들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판로개척 행사에 참가한 기업대표는 "전북해양수산물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을 통해 영세한 해양수산물 식품기업들의 세일즈브화, 제품평화를 보면서 자사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에 큰 자극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현장에서 완판을 했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판촉행사는 전북해양수산물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위기시각의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의 우수한 해양수산물 관련 제품의 수도권 직거래 판로 개척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북 해양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수도권 직거래 판로 개척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사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전북해양수산물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국내외 판촉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실험, 올 공식 서포터즈 '어부바 프렌즈' 발대식 개최

실험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실험)는 지난 15일 대전 실험중앙회 본부에서 2022년 실험 공식 서포터즈 '어부바 프렌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험 어부바 프렌즈는 실험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실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약 3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임직원 서포터즈 12명 및 일반인 서포터즈 1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서포터즈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실험 공식 유



튜브를 통해 △실험 임직원 브이로그(Vlog) △어부바캐릭터 활용 콘텐츠 △조직원 맛집 탐방 △실험 관련 행사 취재 등 실험 브랜드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기획하고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